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
----------	------

발의연월일 : 2016. 9. 1.

발 의 자 : 박완수 · 배덕광 · 조원진
박맹우 · 김성찬 · 주광덕
김정훈 · 조정태 · 주호영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단서).

법률 제 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6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u>당해</u>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양벌규정) ----- ----- ----- ----- ----- ----- ----- -. ----- ----- -- <u>해당</u> ----- ----- ----- ----- --.